



수업 개요

1. 현대 사회에서의 생명의 위기

- 1) 근대의 계몽주의적 세계관에서의 자연의 탈신성화
- 2) 생명공학 기술과 의료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
- 3) 생명의 "의미 상실"의 위기

2. 생명윤리의 기초이론

- 1) 생명 중심적 태도
- 2) 인간 중심적 태도



1) 근대 계몽주의에서의 자연의 탈(脫)신성화(神聖化)

'계몽(啓蒙, Enlightment, Aufklärung)'이란?

근대 사상가들은 **중세**를 **신(神)에 의한 기독교 질서**가 지배한 **암흑의 시대**로 규정하면서, '인간의 본성'이 억압되어 발현되지 못했다고 생각함. **인간의 본성**은 인간의 **'이성'**을 의미. 이성은 **진리를 밝히는 '빛'**으로 간주.

인간이 이성의 힘으로 자연과 사회의 모든 문제를 **객관적으로 관찰**함으로써 **명료하고 자명한 보편적 진리를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음.



"계몽이란 인간이 미성숙으로부터 벗어나 타인의 지도 없이 이성적으로 사는 것, 미완성에서 완성태로 나아가는 것" - 칸트



1. 현대 사회에서의 생명의 위기

계몽주의에서의 자연관



"인간은 기계이며 모든 정신 현상은 뇌의 분비작용에 기인한다." - 라 메트리 <인간기계론>

→ 자연주의(naturalism)

"자연이란 영혼이나 심리가 없는 기계에 불과함. 동물이나 **인간 생명도 기계론적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자동 인형에 지 나지 않는다."** - 데카르트





2) 생명공학 기술과 의료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

생명공학 기술이란?

생물체가 가지는 유전 · 번식 · 성장 · 자기제어 및 물질대사 등의 기능과 정보를 이용해 인류에게 필요한 물질과 서비스를 가공 · 생산하는 기술

활용

- 동식물의 품질개량
- 식량생산(GMO 식품)
- 의료 기술 : 유전자 치환이나 세포융합을 이용해서 인슐린, 인터페론 등 개발



1. 현대 사회에서의 생명의 위기

2) 생명 공학기술과 의료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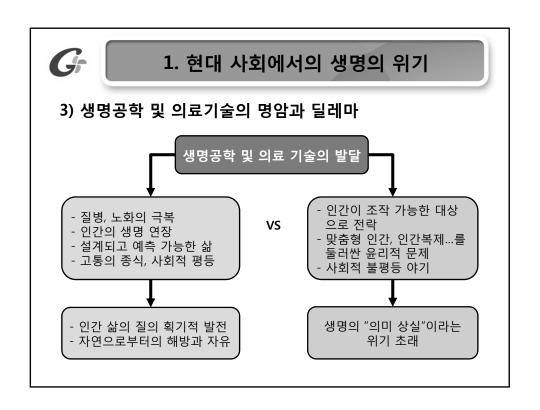
생명공학 및 의료 기술의 미래

유전자정보 이용

- 질병 예측
- 개인맞춤형 유전자 치료
- 세포 수준의 항노화 치료

특정유전자의 제거 및 삽입 기술 발전

- '족집게 유전자 치료'
- 유전자 질환의 산전(産前) 예방, 태내 치료
- 성인에서도 일부 유전자 관련 질환 치료





4) 인간 생명의 "의미 상실"의 위기

생명의 **"의미 상실"** 이란?

- 생명의 근본 현상들은 조작 가능한 "대상"
- 생명의 의미와 가치 축소
 - 아이 : 우연적인 "선물"이 아니라 부모에 의해 만들어지는 존재
 - 죽음 :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품위있는 여행이 아니라 없애고 지연시켜야 할 재난
 - 노화와 질병: 생명의 필연적 현상이 아니라 신체적 결함



❖ 생명 윤리의 필요성

현대에서의 생명의 "의미상실" 위기에 대한 윤리적인 대응

❖ 생명 윤리의 기본 물음

생명공학 및 의료 기술의 발전

자연으로부터 인간의 해방과 자유인가?

VS

생명의 의미상실인가?



2. 생명 윤리의 기초이론

1) 생명중심적 태도

생명은 인간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며, 타고난 신비와 그 자체로서의 의의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

동양 전통 윤리

- 유교(儒敎)
 - 생명의 근원 : 心(하늘) + 身(부모)
- 사주당 이씨 <태교신기(胎敎新記)>
- 효경 <u>"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훼상 효지시야(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u> '신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것이어서) 터럭 한올, 피부 한점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
- **도교(道敎)**: 무위자연(無爲自然), 자연과의 조화, 양생(養生)
- 불교(佛敎)
 - 연기(緣起): 세상 만물은 전 우주적 차원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
 - 불살생(不殺生)



기독교 윤리

생명을 마음대로 조작하는 것은 창조물의 신비 파괴. 인간 생명의 고통 해결은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서만 가능

- **낙태 반대 :** 낙태는 무방비 상태의 태아에게 부모와 의사로부터 가해지는 최대의 폭력이다. 인간의 생명권은 인권의 우선적인 권리인 바 그 어떤 이유로도 낙태는 정당화될 수 없다.
- 체세포 배아복제 반대: 인간의 생명은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수정란 즉 배아는 인간생명이다. 따라서 배아를 이용하는 어떠한 실험이나 연구도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신성함을 침해하는 살인 행위다.
-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한 인공 수정과 출산 반대: 인간의 생명은 인공적으로 사람이 만들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부부 사랑과 일치의 결실로 주어지는 하느님의 선물이다. 시험관 시술을 통한 인공 출산은 착상이 되고 남은 배아의 생명을 없애거나 잔여 배아를 양산함으로써 배아 연구를 조장한다는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다. 모체에 가해지는 시술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수반한다.



2. 생명 윤리의 기초이론

실존주의 윤리

- 현대 과학 기술 문명과 전쟁 속에서 비인간화되어 가는 인간의 현실을 고발함 (키에르케고르, 사르트르, 하이데거)
- 개인적이고 현실적이며 결코 상대화 할 수 없는 인간의 구체적인 실존 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
- 인간 존재의 유한성을 직시하는 결단이 바로 비인간화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주체적인 삶의 자세임을 강조
- 생명의 유한성과 근본 현상을 회피하지 않을 때에만 인간 생명의 고유한 가치를 깨닫고 생명의 무의미를 극복할 수 있음



2) 인간 중심적 태도

생명은 인간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져 있으며,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얼마든지 마음대로 처분 가능하다

공리주의 윤리

0

공리 = 궁리(公利)? - 공공의 이익?

- 공리(功利) = 효용 또는 유용성(utility)
- 만족을 주는 쾌락의 계량(計量) → 도덕의 최고 원칙은 고통의 제거를 통한 쾌락과 행복의 극대화(Maximization)
- 공동체는 개인들의 총합에 불과. 따라서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물어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다: "이 정책에서 얻는 이익을 모두 더한 뒤에 총비용을 빼면, 다른 정책을 선택할 때보다 더 많은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
 -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 생명공학 및 의료 기술의 발전이 생명 현상이 가져오는 많은 불쾌와 불행을 제거할 수 있다.



2. 생명 윤리의 기초이론

공리주의의 약점과 한계

- 1.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오직 만족의 총합에만 관심을 두는 탓에 개인을 짓밟을 수 있다.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개인은 단지 선호도를 더할 때 계산되는 한 항목에 지나지 않는다.
- · 콜로세움의 검투 경기
- ㆍ테러리스트의 입을 열게 하기 위해 죄 없는 딸을 고문하는 것
- ㆍ선로를 이탈한 열차가 다섯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한 사람을 치어도 되는가?
- 2. 가치의 계량화는 원리상 가능 하지도 않고, 언제나 정당한 것도 아닐 수 있다.
- 공리주의는 사람들의 선호를 심판하지 않고 다만 무게를 잰다. 사람들의 기호는 동등하게 계산된다. 즉, 사람들의 선호와 다양한 가치를 더하려면 하나의 저울에 올려놓고 계량해야 한다.
- 비용/편익(Cost-Benefit) 분석을 위한 단위: "값" (모든 가치는 "돈"으로 환산)
- · 폐암환자의 생존이 국가의 보건의료 재정에 부담이 된다면, 폐암환자를 죽도 록 놔두는 것이 옳은 정책인가?



자유주의 윤리

- 이성적 주체로서 인간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 중요
- 생명공학 기술로 인해 인간은 생명을 자유롭게 다 룰 수 있게 되었고 자유로운 주체가 됨
- 자기소유 : 나는 국가나 공동체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속한다.
- (양도할 수 없는) 개인의 권리 : 따라서 나는 나의 의지와 결정에 따라 나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 나의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 타인의 행복을 위해 나의 자산과 권리를 희생하는 것은 훌륭한 행동이다. 다만 그것이 훌륭한 이유는 내가 스스로 그 결정을 했기 때문이지 누가 강제해서가 아니며, 또 그 누구도 타인에게 목숨을 내놓으라고 강요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서는 아니다. (훌륭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난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 피임, 결혼, 매춘, 장기매매, 안락사...자기 소유물인 신체와 생명에 대한 처분의 자유를 주장



2. 생명 윤리의 기초이론

자유주의의 약점과 한계

- 1. 자유로운 거래가 언제나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다.
- 자녀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장을 팔기로 한 부모의 결정은 전적으로 자유로운 선택인가? 또, 설령 그것이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바람직한 것일까?
- 2. 자유로운 거래보다 더 근원적인 원리가 있을 수 있다.
- 안락사를 금지하는 법이 부당하다는 근거로 자유주의는 생명을 포기할 자유가 내게 속한 권리라는 점에 호소한다. 그러나 안락사에 찬성하는 이유가 꼭 소유 권과 처분의 자유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안락사에 찬성하더라도 "인간의 존엄" 을 근거로 안락사에 찬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3. 사람들 사이의 자유로운 합의가 언제나 결과의 정당성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 합의로 이루어진 식인행위 (2001년 독일의 로텐부르크 사건)



❖ 마이클 센델 (생명의 윤리를 말하다, 2010)

생명공학의 모든 기술에서 여전히 도덕적인 문제가 남을 것이다. 문제는 수단이 아니라 그 **기술들이 지향하는 목적**에 있다.

강화와 복제 등이 인간의 존엄성에 위협이 된다는 말도 충분히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런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성을 어떻게 위축 시키는지 말하기도 어렵다.



